

전북혁신도시에 금융생태계 조성

국민연금 해외수탁은행 스테이트스트리트 전주 사무소 개소... 글로벌 투자지원 환경 구축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국민연금 글로벌 수탁은행인 스테이트스트리트(SSBT)의 전주사무소 개소를 통해 해외투자 자산관리 업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글로벌 투자지원 환경을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오후 한국교직원공제회 전북회관에서 개최된 SSBT 전주사무소 개소식에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송성환 도의회 의장, 김승수 전주시장 등이 참석하여 세계적인 금융서비스 전문기관의 전주사무소 개소를 축하했다. 이미 서울에 지점을 보유한 외국은행이 지방에 사무소를 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SBT는 국민연금 해외주식·채채투자 자산에 대한 보관 및 관리 업무와 함께, 국민연금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해외투자자산 미들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 보스턴에 본사를 두고 1792년에 설립된 은행으로, 전세계 100개 국가 기관투자자들에게 투자 관리, 투자운용, 리서치 및 트레이딩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월말 기준 수탁서비스 규모는 32조 6천억 달러에 이른다.

김성주 이사장은 "국민연금 수탁은행의 전주사무소 개소를 통해 공단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글로벌 수탁은행인 스테이트스트리트(SSBT)의 전주사무소 개소를 통해 해외투자 자산관리 업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글로벌 투자지원 환경을 구축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고 고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게 되었다"면서, 이번 국민연금 해외 수탁은행의 전주사무소 최초 개소가 국민연금의 글로벌 금융투자 선진화와 전주의 금융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SBT의 이안 마틴(Ian Martin) 아태지역 대표는 "SSBT의 목표는 세계의 자산 운용사들과 자산 보유자에게 선도

적인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당행의 통합 솔루션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공단이 자산관리에 확신을 갖고 규모의 경제와 성장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전주는 한국의 주요 금융 중심지로서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 도시로, 스테이트스트리트가 전주의 지속적인 성장에 동참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하진 지사는 축사에서 "SSBT 전주

사무소 개소는 제3금융중심지로 가는 기록제가 될 것이다. 향후 예정되어 있는 금융기관 이전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 해외채권 수탁기관인 뉴욕멜론은행(BNY Mellon)은 다음 달 초 전북혁신도시 내에 위치한 스페이스워크에 전주사무소를 개소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관원, 농식품 부정유통 일제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정수경, 이하 전북농관원)은 지난 19일부터 9월 11일까지 26일간 추석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북농관원은 금년 빠른 추석으로 인해 제조·가공업체와 도·소매업소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우선, 1단계인 이달 19일부터 31일까지는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제수·선물용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파악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어서 2단계인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는 농식품 유통량이 많은 대도시에서 특사경을 집중 투입하여 소비자가 많이 찾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 정보 수집 강화, 과학적 단속기법을 활용하고 도내 권역별로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즉 통관자료, 검역자료 등 사전 수집 분석과 통신판매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단속하고, 지능적인 위반사범은 유전자분석, 이화학검정을 활용하여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에 적극 대처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농식품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전통시장, 도매시장 등 제수·선물용 판매업체 밀집 지역에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전북농관원은 올해 7월 말까지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175개소를 적발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08개소는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했고, 원산지를 표시를 하지 아니한 67개소는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 원산지 등 부정유통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민간감시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원산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서민금융 지원 강화로 농가소득 5천만원!

전북농협, 상호금융 하반기 사업추진방향 교육 개최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21일 지역 농·축협 내일 있는 지속성장 과제와 조합원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상생금융 및 포용적 금융 강화를 위해 2019년 하반기 상호금융 사업추진방향 교육을 개최했다.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실시한 이번 교육은 농·축협 본점 신용상무와 지점장 등 31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상호금융 하반기 사업추진방향에 대해 우리지역 출신인 소성모 상호금융 대표이사의 특강, 건전여신과 채권관리 방안, 하반기 금융시장 전망 순으로 진행됐다.

이 날 소성모 상호금융 대표이사는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심화에 따른 사업기반 약화와 디지털금융 서비스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경쟁심화 등 금년도 사업 환경이 녹록치 않은 만큼 비이차의 중대를 통한 수익구조개선과 자산건전



성 제고를 통한 안정적인 성장기반 확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재도 본부장은 "전북농협이 해외 선진 금융기관처럼 견실한 손익구조를 갖추고 지역대표 금융기관으로서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실천 결의 대회를 개최해 '사랑받는 전북농협, 함께 만드는 청렴농협' 구현을 위한 전북농협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윤상 기자

미국 밀레니얼 세대로 'LET'S K-FOOD'

aT, LA서 한류 콘텐츠페스티벌 연계 한국 농식품 홍보관 운영

LA 중심가에 모인 미국 밀레니얼 세대가 비빔밥, 김치전을 먹으며 'Let's K-Food'를 외쳤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이달 16일부터 3일간 미국 LA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한류 문화 콘텐츠 페스티벌 'KCON 2019 LA'에서 한국 농식품 홍보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시장에서 떠오르는 소비주역이자 '콘텐츠'와 '체험'을 중요시하는 밀레니얼 세대 공략에 나선 것이다.

'LET'S K-FOOD, 한국 농식품을 함께 즐기자'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특히 아카데미 시상식 캐티어 링을 담당했던 유명 셰프 리키 황이 쿠킹쇼를 선보여 큰 인기를 끌었다.

리키 황은 김치전, 유자케이크, 비빔밥 등 미국의 신세대들도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K-FOOD 레시피를 소개했고, 방문객들이 몇시간씩 줄지어

기다릴 정도로 시식행사가 성황을 이뤘다. 이외에도 김치, 장류 등 전통적인 인기식품을 비롯해 탄산음료와 커피를 대체할 수 있는 오미자, 작두콩차와 같은 한국의 건강음료 코너도 방문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KCON을 4번째 방문했다는 제니퍼(23세, 여) 씨는 "이번 K-FOOD 행사는 LA 지역의 유명 인플루언서 'LAF OODIE'와 'HANGRYDIARY'의 SNS에도 소개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면서, "평소 궁금했던 비빔밥 레시피도 배울 수 있어서 매우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aT 신현곤 식품수출이사는 "음식과 음악, 영상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연계되면 홍보효과도 훨씬 커진다"면서, "차세대 소비주역인 미국 신세대들이 한국음식을 더욱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한입에 쪽~ 당도 높은 작은 사과 '루비에스'

농진청, 이달 말 70톤 본격 유통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21일, 맛이 좋고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작은 사과 '루비에스' 품종 70톤가량을 이달 말에 유통한다고 밝혔다.

8월 하순에 익는 '루비에스'는 한 개에 60~80g(보통 사과 270~300g) 정도로, 타구공보다 약간 크다.

1인 가구가 늘면서 도시락이나 컵과일용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본 품종인 '알프스오트메'에 '산사' 품종을 교배해 2014년 최종 선발한 '루비에스'는 나과가 거의 없다.

저장성이 좋아 상온에서 50일 이상 유통할 수 있으며 탄저병에도 강하다. 당도가 높고 산도는 낮아(당도

13.9브릭스, 산도 0.49%) 맛이 좋다. 현재 71개 목목 업체에 품종 관련 기술을 이전했으며, 올해 70톤가량이 생산돼 유통을 시작할 전망이다.

아울러, 28일 '루비에스' 고품질 안정 생산 세미나는 대목에 따른 자랍새와 알맞은 대목 선택 방법, 결실(열매 맺음) 관리 방법을 발표한다.

또한, 과일을 직접 살펴보고 맛보는 시간도 갖는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박교선 사과연구소장은 "국산 사과 '루비에스'는 일본 품종 '알프스오트메'를 대체할 만한 우수한 품종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사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 'NH이문디 필승코리아펀드' 가입행사 실시

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은 21일, NH이문디 필승코리아 주식형 펀드 가입행사를 실시했다.

NH이문디 필승 코리아 주식형 펀드는 글로벌 무역여건 변화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쟁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최근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여 '필승코리아'라고 이름 지었다.

이 펀드는 100% 민족자본의 범농협 계열사가 이 펀드의 취지에 동참하여 300억원 가량의 초기 투자금액을 제

공했으며, 아울러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그 수익이 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운용보수와 판매보수를 낮춰 수익률을 높이는 한편, 운용보수의 50%를 공익기금으로 적립하여 기초과학 분야의 발전을 위한 장학금 등으로 기부할 계획이다.

한편, 농협금융은 지난 5일부터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중소·중견·대기업에 대상으로 만기연장과 최대 12개월 할부상환금 유예, 0.3% 특별 우대금리 지원 등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